

露西亞의 思想史上 헤겔主義의 存在 (十一)

(-양코·야-넬說에 依하여-)

田元培

六

켄누이썩스키-도 헬첸과 가티 처음에는 헤-겔學徒였으나, 나중에는 헬첸보다도 훨씬 徹底한 포이엘바하의 唯物論者가 되었었다. 사람들에게 一牧師의 아들로서 當時 露西亞의 宗教的 理想을 맞본 켄누이 썩스키-는 헤-겔의 思辨的 神□□보다도 포이엘바하의 唯物論的 宗教批判에 吟味에 끝뎠든 것이다. 그의 哲學上의 主著인 「哲學에 잇서서의 人間學的 原理」(一八六〇)는 當時 檢閱官의 눈을 속이기 爲하여 포이엘바하의 일흔을 내세우지는 안았지만, 內容에 잇서서 그가 얼마나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의 影響을 밋혔는가를 짐작할 수 잇는 것이다. 그는 人間의 靈魂不滅性을 否認하고 따라서 人間의 自律性만을 承認하였다. 포이엘바하의 「사람은 먹는대로의 動物」이라는 命題가 켄누이썩스키-에 잇서서는 「敎養과 □覺은 密接한 것이어서 하나의 性格은 다른 하나의 性格을 決定하다」는 命題를 □□하였다. 켄누이썩스키-는 그러한 人間學的 唯物論의 立心[場]에서 人間行動이 아무리 高尚한 것일지라도 結局 人間의 利己主義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斷定하였다. 唯物論은 그의 信仰의 對象이었으며 政治的 綱領이었다. 이러한 理由로 그의 「人間學的 原理」는 當時 露西亞 靑年들의 綱領이 되었었다. 人間學的 唯物論은 켄누이 썩스키-에 잇서서는 그릇된 世界觀을 到達하는 것, 唯物論的 基礎 위에 新 새로운 文明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켄누이 썩스키-는 포이엘바하가 노흔 唯物論的 基礎 위에서 露西亞人 뿐 아니라 全人類를 眞正하게 敎育할라는 「近代的 아리스토텔스」가 된 것이다.

唯物論은 그것이 어떠한 形態의 것이든지 間에 처음으로 歷史 上에 出現할 때에는 언제든지 만다시 進步的 意義를 갖는 것어니가 켄누이 썩스키-의 唯物論은 더욱이 當時 露西亞의 神學的 世界觀과 人生觀에 對한 □□한 否定 다시 말하면 니코라도와 아렉산더의 □□에 對한 哲學的 反抗이었다는 意味

에서 進步的 意義를 가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켈누이 쉘스키-의 人間學的 唯物論은 當時의 露西亞 國家에 對해서 보다도 教會에 대한 說□이었다. 그는 포이엘바하에 따라서 神學을 人間學에 還元하고 「宗教鬭爭」의 目的이 그 實은 □上의 理念에 잇섯든 것을 □□하였다. 그는 포이엘바하의 「宗教의 本質」(一八六一)과 「基督教의 本質」(一八六二)을 露西亞語로 翻譯하여서 露西亞 인테리켄차의 □□의 歡呼를 받았으며 一八六三年에 루-난의 「□□□」이 發行되자 그는 一世를 風流하는 大□□을 形成하였었다. 이와 가티 켈누이 쉘스키-는 포이엘바하의 헤-겔批判의 唯物論的 結果를 發展시키고 이 唯物論을 露西亞의 現實에 具體적으로 適用함으로서 進步的 意義를 獲得하였지만, 그는 □□에 잇서서 「헤-겔의 進步的 契機」即 새로운 世界觀의 辨證法的 本質을 □□한 自然主義的 又は 「人間學的」 □一□□을 免치 못하였었다. 이 偉대한 思想家도 當時 露西亞 인테리켄차들이 흔히 맞든 카□가(西伯林亞에 追放된 強制勞役)의 刑을 맞아 먼 西伯林亞로 受難의 길을 떠났었다. 그때 그의 가슴에는 「政治犯人」이란 徽章이 부텻었다 한다. 켈누이 쉘스키-가 西伯林亞의 「약트」라는 邑에서 □□許可를 받은 一八八三年에는 「露西亞 맑스主義의 父」 프레하노브[프레하노프]가 그의 「社會主義와 政治鬭爭」이란 著書를 가지고 思想史 上에 登場하였다. 이로써 露西亞 헤-겔主義史의 前期 一終焉을 告하고 새로운 時代가 開始되었든 것이다. (以上)